



Stop & Clean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불법 스포츠도박,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 관련기사 8편



투런포·2루타·4출루
김현수가 제일 잘나가
4번

스포츠동아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sportsdonga.com 33판

프로야구 경기 결과 <29일>

잠실	NC	10 : 4	두산
고척	한화	4 : 7	넥센
수원	SK	7 : 4	kt
사직	삼성	4 : 5	롯데
광주	LG	4 : 5	KIA

6연승 이끈 ‘캡틴 꽃범호의 매력’

LG전 9회 끝내기안타...KIA, 3위와 4경기차 어느새 중위권 다크호스로



KIA가 6연승을 해냈다! 당초 약체로 평가받던 KIA가 6월 대반전을 이뤘고 있다. KIA 주장 이범호가 29일 LG에 5-4, 9회말 끝내기 안타를 쳐낸 뒤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힘들어도 헌신하는 모범적인 리더 승부 결정짓는 영앙만 만점 타격도 이범호 “이제 치고 나갈 준비됐다”



KIA의 기세가 무섭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6연승을 내달리며 중위권 싸움에 불을 댕겼다.

KIA는 29일 광주 LG전에서 9회말 타진 이범호(35)의 끝내기안타로 5-4,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2015년 7월 28일~8월 2일 이후 332일 만에 6연승을 기록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맥없이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어느새 3위 넥센과의 거리를 4게임 차로 좁히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KIA의 선전에는 이범호의 헌신이 있었다. KIA 김기태 감독은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고마운 선수로 이

범호를 꼽았다. 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잘 해줬지만 (이)범호가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줬다”며 “선수단을 잘 이끌었고, 선수 개인으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배태랑들이 참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의 말처럼 이범호는 현재 팀의 중심이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행동하는 모범적인 주장으로 피곤해도, 힘들어도 참고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이며 선수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중심타자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앙기도 높다. 그는 이날 컨디션 난조로 선발 출장 명단에는 제외됐다. 대타로 나선 7회에도 삼진을 당했다. 그러나 9회말 1사 1-2루 찬스를 놓치지 않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15호, 통산 961호, 개인 3호 끝내기안타였다. 개인으로는 2003년 4월 9일 한화 소속으로 대전 LG전에서 끝내기홈런을 친 이후

무려 13년 만에 기록한 짜릿한 한 방이었다.

이범호는 경기 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대타로 나갔는데 삼진을 당해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두 번째 타석(9회)에서는 끝내기 상황이라서 꼭 치고자 했는데 운이 좋게 안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투수였던 이동현(LG)이 직구와 바깥쪽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칠까’ 고민이 많았다. 몸쪽 직구를 일찍 결어 친 것이 운 좋은 안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범호는 이날 승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 끝내기 승리를 계기로 팀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지금 선수단과 프런트 톡톡 묻쳐 팀 분위기가 좋다. 올스타브레이크까지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14면
광주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서울 데뷔전 3실점 ‘황선홍 감독의 숙제’

성남전 패스미스 실점·퇴장...1-3 역전패 전북, 전남 꺾고 ‘개막 17경기 연속 무패’



FC서울 황선홍(48) 감독이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서울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FC와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7라운드 홈경기를 펼쳤다. 27일 서울 사령탑으로 취임한 황 감독의 공식 데뷔전이었다. 그러나 1-3으로 완패했고, 경기 내용 또한 좋지 않았다.

황 감독은 최용수 전 감독이 지휘할 때와 같은 3-5-2 포메이션과 주전 선수들로 성남전에 나섰다. 전반 13분 아드리아노의 선제골로 먼저 리드를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다. 오른쪽 측면에서 고광민이 크로스를 볼을 아드리아노가 헤딩슛해 성남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전반 19분 실수가 동반된 동점골을 내준 뒤로는 고였다. 상대의 역습 맞고 있었지만, 골키퍼 유상훈이 과도하게 전진하는 바람에 성남 티아고에게 쉽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전반 33분에도 수비수 정인환의 패스미스가 빌미가 돼 황의조에게 역전골까지 내줬다.

전반을 1-2로 마친 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윤주태를 투입해 공격적으로 나섰다. 후반 11분 불운한 3번째 실점이 이어졌다. 성남 피투가 직접 프리킥한 볼이 크로스바를 뚫긴 뒤 골대 밖으로 떨어졌다. 볼은 다이빙한 유상훈의 몸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FC서울 황선홍 감독(왼쪽)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성남FC와의 홈경기 도중 정인환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황 감독은 서울 사령탑 데뷔전에서 1-3 완패를 당했다. 상임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2골차로 벌어지자 황 감독은 수비수 1명을 빼고 윤일복을 집어넣어 4-4-2로 포메이션을 바꿨다. 그러나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성남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후반 28분 아드리아노가 상대를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다. 박주영으로 교체하려던 황 감독은 타이밍을 늦춰야 했다. 2분여 뒤 박주영을 내보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2위 서울(9승3무5패·승점 30)은 올해 리그에서 첫 2연패를 당해 이날 전남 드래곤즈를 2-1로 꺾은 선두 전북현대(9승8무·승점 35)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편 포항 스틸러스는 울산현대를 4-0, 광주FC는 수원삼성을 2-0, 인천 유나이티드는 상주상무를 1-0으로 각각 눌렀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FC는 득점 없이 비겼다.

▶황선홍 감독 “변화는 상주전 이후” 6면
상임 | 최용석 기자 cyong@donga.com

전도연, 11년 만에 안방극장 “데뷔하는 마음으로”

“굿와이프” 스토리와 극적인 상황에 매료

“데뷔하는 마음 같다.” 11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면서 배우 전도연은 그렇게 말했다. 2005년 SBS ‘프라하의 연인’ 이후 다시 드라마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는 시청자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으로 자신의 신작을 소개하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전도연은 미국 CBS 드라마 ‘굿와이프’를 원작으로 한 케이블채널 tvN 범접수사극 ‘굿와이프’의 7월8일 첫 방송에 나선다. 극중 평범한 주부였다가 15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하며 이야기를 펼쳐간다.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전도연은 “데뷔작과 같은 마음”이라며 “떨려서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혀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도 내놓지 않았다. 11년 만에 시청자와 만나면서 케이블채널과 장르물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작들과 달리 인물보다는 스토리와 극적인 상황에 매료됐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소개한 그는 이마저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엇보다 초심을 잊지 않았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왔다는 그는 바로 그런 점에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변호사 역이지만 사회가 쉽지 않은 법률용어마저도 “외우는 것에 잘 적응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 내버리지 않고 있는 초심의 열정을 대변했다. 전도연은 극중 주부였다가 검사인 남편(유지태)의 부패 혐의로 인해 로펌 변호사가 된다. 실제로도 전도연은 아내와 엄마이기도 하다. 그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균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며 “(현실과) 닮은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며 천상 배우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프로축구 경기 결과 <29일>	전주	전북	2 : 1	전남	인천	인천	1 : 0	상주	상암	서울	1 : 3	성남	포항	포항	4 : 0	울산	수원	수원삼성	0 : 2	광주	서귀포	제주	0 : 0	수원FC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철·크라उन·충진치료까지 꼼꼼하게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보험료까지 조금도 오르지 않는 라이나 THE 건강한치아보험입니다!”

조금도 오르지 않는 보험료에 보철·크라उन·충진·신경·영구치 발거치료까지!

라이나 THE 건강한치아보험 III (비갱신형)

- 든든하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 보장
- 금 등으로 덮여싸우는 크라운치료까지 보장
- 무료 구분 없이 개수 제한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지주하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도 보장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080-797-7700**